

‘사바세계 그대로 정토’ 화폭에 구현

득산 스님 개인전 ‘삼보전에’ 7월 10일까지 대전 토지사랑갤러리서

누구나 쉽게 불교미술을 감상하고 생활소재를 통해 불법을 드러내는 ‘생활불교미술’을 수행 및 포교방편으로 정진해 온 구미 득산달마선원 원장 득산 스님이 제23회 개인전 ‘삼보전에’를 연다.

7월 1~10일 대전 토지사랑갤러리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연꽃과 금붕어, 불상과 탑, 풍경과 법당 등을 소재로 한 작품 22점이 전시된다.

출가 33년, 화업(畫業) 48년의 수행 이력이 담긴 원숙한 작품들에서는 세속에 살면서도 탐진치 삼독에 물들지 않는 연꽃이 맑고도 아름다운 입급색깔 무지개빛으로 화면을 장엄한다. 일주문과 불이문과 어울린 산과 연못, 물고기, 화두, 여성 등의 소재들은 사바세계 그대로가 정토(淨土)임을 암시한다.

특히 득산 스님이 개발한 불에 굽는 ‘불화(火畵)’ 작업을 거쳐 완성된 그림은 고구려 벽화와 같은 고풍미(古拙美)를 담고 있어 신비감을 자아낸다. ‘화화’ 작업은 일반 물감으로 그림을 그린 후 토지 램프로 가열하면 본래의 색과 전혀 다른 색으로 환치 되는 원리를 응용한 것. 예를 들면 노란색은 주황, 파란색은 초록 등의 색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얻은 색이 오방색과 다섯가지 간색이다. 불에 굽는 죽음의 과정을 거쳐 새롭게 탄생한 그림은 색이 선명하고 화려하면서도 세월을 뛰어넘는 깊이가 느껴진다.

득산 스님은 이번 작품에 또 다른 의미를 부여했다. 일주문은 남자, 불이문은 여자를 의미하며 세상의 모든 남자가 일주(一柱), 불이(不二)의 본성을 지켜야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미술, 한국전업미술가협회, 대전 구상작가협회, 대전불교미술협회 등 다



득산 스님.



득산 스님 작 ‘삼보전에’. 세 연꽃과 촛불, 산과 어울린 ‘달마부처님’은 불·법·승 삼보를 상징한다.

양한 중인 및 협회 활동을 펼쳐온 스님은 무려 600여 차례의 기획, 초대, 단체전을 통해 그림포교에 매진해왔다. (054)452-1323 김성우 기자

룸비니 등 네팔 불교문화 한 자리에

네팔대사관 ‘네팔-자연문화와 기회의 땅’ 전시



관세음보살의 눈물에서 나온 타라(Tara)보살과 불교 장엄구들.

부처님 탄생지인 룸비니를 품고 있는 네팔의 불교문화와 자연을 선보이는 전시회가 마련됐다.

주한 네팔대사관은 6월 22일~7월 4일 서울 순화동 한국국제교류재단 전시실에서 ‘네팔-자연 문화와 기회의 땅’ 전시회를 열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네팔의 불상, 부처님의 명상과 일생을 그린 불화, 마니차(불교의식구)를 비롯해 허말라야, 에베레스트 등 자연 풍광을 담은 그림과 사진, 민속의상, 인형, 전통 악기 등 200여 점이 전시 중이다.

한편 22일 개막식에는 커피 프러사드 꼬이랄라 주한 네팔대사를 비롯해 진각종 통리원장 해정정사, 한명숙 前 총리, 산악인 박영석씨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02)3789-9770 김성우 기자

조계종 불교의식 CD에 담겨

불교어산작법학교 인묵 스님 해설 곁들여

예불, 불공 그리고 천도의식까지 조계종에서 사부대중이 사용하는 불교의식을 총망라한 의식집이 CD로 나왔다.

이번에 발간된 CD는 어산작법(법패작법부)과 불전 의식 전문교육기관인 조계종 불교어산작법학교 학장 인묵 스님(봉선사 주지)이 지난 1992년 불교의식과 집전 등을 모아 카세트테이프 제작한 것을 18년 만에 다시 디지털 작업화 한 것이다.

무려 5년간의 제작기간이 소요된 이 의식집은 도량석, 종송 및 사물, 예경 및 발원, 신중단 및 특별예불로 구성된 예불 시리즈를 비롯해 삼보통정 및 신중청, 관음청 강가의 엮인 불공, 시련 및 대령, 관육, 산중작법 및 설법의식을 담은 천도 시리즈 등 총 18장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인묵 스님의 해설을 곁들인 강의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기가 구제되

으로 담겨 있어 포교현장의 스님과 포교사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묵 스님은 의식집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연내에 포교원과 전문가들이 동참한 가운데 예불 의식과 방생, 시달림, 상장례 등을 포함한 CD 6장을 추가로 제작할 예정이다. (02)921-3425 김성우 기자



조계종 불교어산작법학교 학장 인묵 스님.

욕망 비운 자리에 풍경 가득하니...



목아博·은모래사진동호회 ‘채움전’

여주 목아박물관(관장 박찬수)과 여주 은모래사진동호회(회장 안준기) 회원들은 6월 20일부터 연중 특별사진전 ‘채움전’을 열고 있다.

목아박물관 비우소 2층에서 전시되는 ‘채움전’은 세속의 욕망을 비워낸 몸과 마음에 아름다운 풍경이 담긴 예술작품을 채운다는 의미로 기획됐다. 여주의 사계절을 담은 풍경과 목아 박찬수 관장(중요문화문화재 제108호)이 목조각과 함께 살아온 삶 등이 50여점의 사진 속에 녹아 있다.

목아박물관 김선정 학예연구원은 “이번 특별전은 지역 작가들에게 전시 기회를 주고 지역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며 “지역 예술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목아박물관은 1989년 우리나라 전통 목조각 및 불교미술의 계승과 발전을 목적으로 세워져 1992년 문화관광부 제28호로 등록된 전문사립박물관이다. 설립자인 박찬수 관장을 중심으로 전통문화에 기반을 둔 전시회가 수시로 열리고 있다. (031)885-9952-4 김성우 기자

박찬수 작 ‘목아 박찬수’

전통 불교미술에서 실용창작까지

‘선-아트 스페이스’서 무료강좌

젊은이들의 예술문화공간인 서울 종로구 팔판동에 자리한 복합문화공간 ‘선-아트 스페이스’에서 불교미술을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강좌가 마련됐다.

전통불교미술 교육단체인 ‘아카데미 선그림’은 7월 2일부터 4회에 걸쳐 일반인들이 전통미술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커리큘럼을 마련, 공개 무료강좌를 연다.

연꽃문양을 이용한 생활소품 만들기를 지도하는 실용창작교실은 7월 2일과 7일 오전 11시~오후 1시에 열린다. 한지 그림판에 동자도를 그리는 전통화교실은 7월 9, 14일 같은 시간에 개강한다.

박경귀 선불화공방 원장(문화재수리기술자 443호)은 “이번 강좌는 어린이, 청소년을 비롯해 미술교사, 일반인, 외국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에 불교미술을 가르침으로써 포교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02)732-0732 김성우 기자

광고는 따로 갑니다~

자꾸 에러나서요~ ^^

잘 부탁드립니다~